

# 황교안 청문보고서 총돌 ... ‘반쪽 총리’ 되나

### 與 “단독처리 불사” 野 “부적절 협조 안해”

#### 대정부질문 날짜·상임위 개최는 합의

여야가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12일을 임명동의안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야당에서 경과보고서 채택과 인준안 처리에 비협조적인 경우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부적절’ 판정을 내렸고 인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의원총회에서 황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의견을 재차 수렴하기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논의를 했다.

여당은 12일에는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황 후보자가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추가 검증과 황 후보자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회동을 마친 뒤 “내일(12일) 오전까지 야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오후쯤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를 채택해 국회법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여당이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것은 국회 파행을 초래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연합 이준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국

회에서 만나 6월 임시국회 세부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정부질문 날짜와 상임위 개최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은 합의되지 않았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은 황 후보자(인준을 위한) 본회의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다”며 “황 후보자가 총리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총리 인준 관련 본회의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대정부질문은 이날 18, 19, 22, 23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분야별 질문 의원은 여야 각 5명씩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여야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메르스 대책 관련 법안은 오는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과 정보위원

장, 윤리특별위원장은 다음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결산 예비심사는 원칙적으로 6월 임시회 중 끝내기로 했다.

하지만, 대정부질문은 국무총리가 나와서 질문에 답변하는데, 아직 황 후보자가 인정되지 못해 누가 나와서 답변해야 하는지 정하지 않았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정부질문에 누가 나오지에 대한 질문에 “주말에 민심의 동향을 보고, 대정부 질문을 신임 총리(황 후보자 인준 후)가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대행 체제(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로 하는 게 맞는지 등을 고려해서 다음 주 정도에 판단을 할 생각이다.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밝혔다.

여당이 황 후보자의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한다면 총리 인준 표결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어떻게 하든지 옳은 지 다시(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통일대박’ 현실화 가능성 높다 경제적 편익, 비용의 3.1배 달해

### 6·15 15주년 전문가 주장

6·15 남북공동선언 15주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통일 분야 전문가와 연구기관들이 한반도 통일 비용과 경제적 편익에 관한 분석을 한 결과, ‘통일 대박’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하느냐와 북한 경제를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냐를 놓고 추계 방법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 보고서가 추정하는 통일 비용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통일의 편익이 비용을 훨씬 웃돌 것이라는 데는 대부분 일치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료에서 통일의 경제적 편익이 비용의 3.1배에 이를 것으로 봤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에 평화적 통일이 된다는 전제로 2016~2060

년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편익 총액이 1경4451조원으로 예상 총 비용(4657조원)의 3.1배에 달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해 4월 한 언론 기고문에서 “통일 비용이 어림잡아 1000조원으로 추정되지만 북한 지하자원의 가치만 7000조원을 상회한다”며 “우리나라도 통일 대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썼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는 2013년 보고서에서 북한의 점진적 개방을 거쳐 통일이 될 경우 2025년부터 향후 35년간 3102조원 내지 4737조원의 비용이 들고 총 4900조원의 편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2010년 ‘남북통일,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통일 비용을 170조원, 편익을 240조원 정도로 추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 수소차 허브도시로 만든다”

### 市-현대차그룹 업무 협약

#### 진국충전소에 수소융합스테이션

현대자동차그룹(회장 정몽구)이 광주 시,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인 수소융합스테이션(복합충전소) 구축을 본격화하는 등 광주의 수소차 허브 도시 구축에 큰 힘을 보탠다.

현대차그룹은 11일 광주시청에서 운영한 광주시장과 유기호 광주혁신센터장, 권문식 현대차 부회장, 오영 광주그린카진흥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융합스테이션 구축 및 수소연료전지서비스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광주혁신센터는 광주그린카진흥위원의 진국수소충전소에 연말까지 수소융합스테이션을 전국 최초로 구축한다.

융합스테이션은 수소, CNG, 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해 수소와 전기 등 무공해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로, 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저장·분산 발전까지 할 수 있는 복합 에너지 충전소 역할을 맡게 된다.

광주시는 관련 부지 등의 인프라를, 현대차그룹은 융합스테이션 구축을 위한 각종 기술 제공과 구축 작업을 지원한다.

지난 1월 문을 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도 수소연료전지 분야 기술 개발과 검증 사업, 창업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성장사



운영한 광주시장과 권문식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 유기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오영 광주그린카진흥위원장 등이 11일 광주시청 광장에 전시된 수소버스 앞에서 광주의 수소차 허브도시 구축과 관련해 대화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다리 펀드 및 150억원 규모의 수소펀드를 조성하고 오는 7월 유관 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 활동에 나선다.

권문식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이날 “융합스테이션 플랫폼 구축과 수소연료전지 서비스 시범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광주시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광주그린카진흥원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운영한 광주시장은 “광주가 미래로 가는 길목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수소연료전지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산업”이라며 “융합스테이션 구축은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며, 광주가 친환경자동차산업 도시로 나아가는 시발점이자 자동차산업밸리 조성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대차그룹은 시범운영 협약

에 따라 차량제작비만 20억원대에 이르는 16인승 리무진 수소연료전지버스 1대를 광주시에 전달하고 본격적인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내년 5월부터 광주시에 무상 임대되며, 최고 속도 시속 100km,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 440km의 성능을 갖췄다. 전국적으로 총 5대가 시범 운영중이다. 수소연료전지버스는 배기가스 대신 물이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당비 대납’ 노중석 전남도의원 의원직 상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당시 이낙연 후보를 위해 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중석(56) 전남도의회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낙연 당시 후보 측의 비서관 이모씨는 상대 추승용 후보 측보다 관리당원 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이낙연 후보 측 비서관은 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해 이 후보 측 관리당원수를 늘리기로 마음 먹었고 당시 캠프에서 합평 연락사무소장을 맡고 있던 노 의원에게도 245만원을 주며 합평지역 당원 1200여명의 당비를 대납하도록 요구했다. 노 의원은 이 후보 측 요구에 따라 직원을 시켜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의원은 재판에서 당원들이 당비 대납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전남도,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 10월까지 각 시·군에 설치

전남도는 11일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태풍, 집중호우 등에 따른 농작물 및 농업 시설물의 피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올해 태평양의 엘니뇨 감시 구역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 강한 태풍이 많이 발생, 우리나라에 2~3개가 영향을 주겠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오는 15일부터 10월까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도 및

각 시·군에 설치해 농작물팀, 축산팀, 수리시설팀, 산림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평소에는 대책팀별로 각종 농업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고,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강하도록 했다.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비상체제로 전환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해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응급복구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복구 지원이 이뤄지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감정가대비  
70%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최회 공제료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과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상세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빛고을새마을금고